

양국 정상 공동선언 기자회견(러시아)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고 성대하게 맞아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러 양국관계가 지난 90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왔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한층 더 격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본인과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추구하는 동북아 평화번영구상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극동 시베리아 개발전략이 지향하는 바가 유사하고 이런 비전에 따라 양국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건설적 기여를 평가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호혜적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향후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발전하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건설적 기여를 평가했고, 본인과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진전을 통해 북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본인과 푸틴 대통령은 양국간의 교역 및 투자가 증가추세에 있음에 만족을 표시했고, 에너지 철도 우주기술 아이티 분야에

서의 호혜적이며 실질적인 협력 사업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주기술협정 체결과 기업간 약정 체결은 향후 구체적 협력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과 푸틴 대통령은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러시아의 WTO와 ASEM 가입 등 지역 및 국제 다자 협력기구에서 양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국제테러와 WMD 비확산 등 국제문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은 두 나라 발전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관심과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며 양국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회담 결과를 두 나라 국민에게 알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 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매우 알차고 효율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 푸틴이 따로 베풀어 준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격의 없이 가슴을 열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를 통해 양국간에 이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각별한 배려를 해준 푸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